

# 한문과와 국어과의 상보성 배경과 내용 연구

허 연 구 \*

<目次>

I. 서론	III. 한문교과와 국어교과의 상보성 내용
II. 한문교과와 국어교과의 상보성 배경	IV. 결론

<국문 초록>

한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한자는 우리 민족의 문자생활을 잠식하였고 문학과 역사, 철학은 한자나 한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유통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갑오경장을 거치면서 한자와 한글의 운명은 뒤바뀌게 되어 문자생활의 중심점이 한글 중심으로 변화한다.

이후 변화하는 어문정책 속에서 국문과 한문을 포함하는 국어교과가 탄생하게 되었고 국어교과 내에서 한자와 한문은 간신히 생존력을 유지하여 비록 이전시대보다는 많이 약화되었지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문이 정식 교과가 된 3차 교육과정부터는 국어과에서 독립한 독립교과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한문과와 국어과는 목표를 달리하는 두 교과로 갈리게 된다.

그러나 한문과와 국어과가 비록 정체성이 다른 교과라 할지라도 여전히 교과 내용면을 살펴본다면 상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영역을 볼 때 국어과의 읽기, 문법, 문학 면에서 한문과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이는 각 교과를 학습하는데 상호 배경 지식이나 스키마를 형성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을 표현한 교과서나 평가문항

\* 늘푸른고등학교 교사 / h7543@hanmail.net

을 보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국어과의 교과서에서 한자어 설명, 성어에 대한 설명, 어려운 어휘의 한자 병기 등은 한문과의 상보성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또 한문의 핵심 능력인 한문 독해 능력은 국어의 문법지식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문과와 국어과는 두 교과 간 상보성이 강한 교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한문과와 국어과의 상보성 연구는 두 교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한문과의 입장에서도 정체성 확립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주제어】 한문교과, 국어교과, 상보성, 상보성 배경, 상보성 내용

## I. 서론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문제를 보다 보면 의아할 때가 있다. 한문과목도 아닌데 어려운 단어나 지명 등은 여지없이 한자를 併記하고 있다. 우리교육에서 한글전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문정책의 핵심이 되었을 텐데, 아직도 평가문항에는 국어 문제인데도 여전히 한자가 나오고 있다. 특히 매 시험마다 한자 어휘나 성어를 묻는 문항이 1문제 정도 포함되고 있다.

수능 문제 이외에 국어교과서로 들어가면 한자가 병기된 본문은 허다하고, 특히 고등학교의 문학교과서는 한문교육용 한자 1800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한자들로 가득하다.

바로 이러한 현상만을 두고도 국어교과는 한문교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과목임을 알 수 있다.

한문교육은 국어교육과 교과 목표는 다르지만 실제 교과 내용에는 비슷한 내용이 많다. 한문과가 독립적인 교육과정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3차 교육과정 이전에는 국어과의 일부로 언어생활의 한자어와 고전 등으

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어문정책에서 한자를 한글과 분리하려는 시도 때문에 한자를 포함한 한문은 3차 교육과정 이후 어느새 이방의 문자로 취급 되었고 그러한 이방 문자적인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적어도 어문정책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확고한 한글전용의 어문정책만큼이나 변할 수 없는 것이 한자·한문의 생존력이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사용하였던 문자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고, 오랜 기간 전승되어 기록된 역사와 문학도 한자·한문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한때 같은 배를 타고 있던 국어과의 입장에서 보면 한문과는 멀어질 수도 없고, 어문정책이 버티고 있어 쉽게 가까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고 이러한 국어과와 한문과가 평행선을 긋고 계속하여 외면만 한다면 발전 없는 관계는 영원히 해결될 기미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의 한자·한문의 활용방안을 한문교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문교과와 국어교과는 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과연 한문과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한문과에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문교과는 국어교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문교사는 국어교과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폭넓게 조망하여 한문교과와 국어교과의 상생적 발전에 진일보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즉, 국어교과와 한문교과가 서로의 교과 입장에서 상대방 교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相補的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한문교과와 국어교과의 상보성 배경

한문과와 국어과의 상보성에 대한 연구가 직접적으로 수행된 경우는 없다. 다만, 어문정책 측면에서 국어교육에서의 한자·한자어 교육과 관

련한 논문이 있었고, 국어교과서에 쓰인 한자어나 한자교육방법 연구, 한문교육에서의 한자·한자어 교육을 통한 언어생활과의 연계성 연구 등이 있었다. 또 한문교육 측면에서 고전, 문학 관련 연구가 다수 있으며,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의 한자교육과 중등학교 한문교육의 연계에 관한 연구가 시행되었다.

한문교과를 제외한 타 교과에서 한자·한문 관련 연구는 국어교육 연구자들에게서 주로 진행되었으며, 국어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1)</sup> 일부대학에서는 국어교과서의 한자어를 조사하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국어교과서 한자어 분석과 한자교육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sup>2)</sup>

그러나 초중등 교육과정의 국어과와 한문과의 교차 검토를 통한 상보성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연구는 두 교과들의 상보성을 위한 발전적인 논의로 볼 수 있으며 한문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국어과와 한문과의 상보적 내용을 고찰하기 이전에 상보적 배경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갑오개혁이후 타자화 되어간 漢文과 國語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보적 관계인 한문과 국어의 상보적 상황의 외연을 넓혀 보고자 한다.

## 1. 語文政策에서의 國語와 漢文의 운명

### 1) 甲午改革과 國漢文 混用

한자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은 BC 10세기경<sup>3)</sup>으로 대략 3,000여년의

- 
- 1) 이동재, 「한자어 교육의 성과와 과제」, 『한문교육연구』 제37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11, p.197.
  - 2)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대학원 학위 논문으로 한자교육 실태 파악 연구를 시행하였다.
  - 3) 신용호, 「漢字의 東來 연구」, 『어문논집』 23호, 안암어문학회, 1982, p.319.

시간을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한자가 유입되기 전에도 우리 조상들의 말을 기록한 문자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자를 빌려 쓴 吏讀, 鄉札, 口訣 등을 보면 우리말의 기록을 한자에 의탁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

한자가 傳來된 이후 우리 조상들의 문자생활은 한자가 잠식하였다. 우리 역사의 기원으로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근세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나라의 어문은 한자와 한문의 사용이었다. 비록 빛나는 문화유산인 訓民正音이 만들어졌음에도 여전히 수 백 년 동안 한자사용은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전통은 갑오개혁 이전까지도 계속되어 구미 열강과의 각종 조약 체결 시에 체결 당사 국가의 언어와 영어, 그리고 한문으로 조문을 작성한 것<sup>4)</sup>에서도 알 수 있다.

한글이 우리나라 어문정책의 中央에 등장한 것은 갑오개혁(1894년) 때이다.

제14조, 법률·칙령은 모두 國文을 기본으로 하고 漢文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國漢文을 혼용한다.<sup>5)</sup>

고종은 갑오년(1894년) 11월 21일, 칙령 1~8호를 발표하였다. 그 중에 공문을 작성하는 식[公文式]을 밝히는데, 제14조의 내용에서 그동안 공문서에서 한문 중심의 문장 체계를 처음으로 국문 중심의 체계로 바꿀 것을 선포한다. 개국 이래 한자라는 문자를 사용하여 한문 문장을 우리 國文처럼 여겼던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혁명적인 조치였다. 또 과거 『訓民正音諺解』나 『杜詩諺解』, 『小學諺解』 등에서는 한문을 國文으로 바꾸어 일반 백성들의 이해를 도왔으나, 국문으로 쓰고 필요시 한문으로 附

4)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에서 ‘漢文’으로 검색한 결과 강화도조약 이후 구미 열강과의 조약문을 당사국 언어와 한문, 또는 당사국 언어와 영어, 한문으로 기록하였다.

5) 『朝鮮王朝實錄』, <高宗31年 11月 21日 기사>, “第十四條: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

記한다는 조치는 어문 정책면에서 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물론 이 당시의 國文으로 쓴다는 것이 현재의 한글 전용과는 차이가 있다.<sup>6)</sup> 소설가 이수광은 당시 신문 잡지에서 구사하는 문체는 이름은 국한문이지만 실제로는 순한문에 국문을 현토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sup>7)</sup>

국문 전용의 칙령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 한글을 전용하자는 취지라기보다는 당시 일본의 영향력 속에서 청나라를 배격하려는 일종의 조치였으며, 일본을 통해 신식교육을 받은 개혁중심 세력들에 의한 문자정책의 변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종뿐만 아니라 당시 개혁의 중심세력들도 한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한자는 이용하되 문장 서술의 방법을 言文一致에 의한 국문체로 통일하자는 것이었다.<sup>8)</sup> 또 신식학교를 설립한 선교사들도 한문의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한자·한문을 한글, 영어와 함께 가르치게 되었다.<sup>9)</sup> 육영공원의 영어교사인 기포드(D.Gifford)는 한문 經書를 공부하는 것은 서양에서 학생들이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고전을 배우는 것과 같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했고, 배재학당의 아펜젤러(H.G.Appenzeller, 1858-1902)는 한학 공부가 정신적 도야의 기능도 하지만 영어습득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습의 전이 효과가 있어서 영어나 서양 학문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sup>10)</sup> 이처럼 국문으로의 전환 시대를 맞이했음

6) 정재철, 「한국의 문자정책과 한문교육 -한문과 한글의 교섭 양상에 주목하여-」, 『한문교육연구』 제33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p.34.에서 재인용. 심재기는 개화기 교과서에 사용된 문체를 현토체, 직역언해체, 의역언해체로 구분하였다.

7) 정재철, 위의 논문, p.33.

8) 이돈석, 「근대이후 어문정책과 한문교육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28.

9)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 교육과학사, 1997, pp.240-241.

10)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위의 책, p.242.

에도 한문의 위상은 서양인들의 입을 통해서 보더라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갑오개혁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국한문 혼용을 대내외에 천명한 사건으로, 이후 공문서뿐만이 아니라 신식학교나 각종 신문의 기사 작성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 2) 解放 後 한글전용론과 한자병용

일제강점기는 일제의 문화침탈로 인해 한글이나 한문이 점점 축소되어 한때 國文이 일본어가 되기도 하였다. 암울한 시대상황 만큼이나 국문[한글]이나 한문이나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는 않았으나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한글을 중심에 둔 우리 것 찾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해방 후의 한글전용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방 후 1948년 5월부터 국회가 열리고, 7월 17일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심의를 통해<sup>11)</sup> 국회의 의결을 거쳐 1948년 10월 9일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한 나라의 국어에는 그 나라의 국민정신이 흐르고 있고, 민족정기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신생독립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한글을 전용함으로써 자주독립의 정신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임.

[조문]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되, 일정기간 한자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함.<sup>12)</sup>

이 법조문에서는 국어를 한글로 규정하고 공용문서를 한글전용으로

11) 이돈석의 앞의 논문에 국회 회의록과 당시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글 전용법제화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12) 국가법령센터(<http://law.go.kr>)의 ‘공포법령’에서 검색한 내용이다.

할 것과 한시적으로 한자를 병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이 공포되었어도 관공서 등에서는 여전히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고, ‘한자사용에 관한 건의안’을 제시<sup>13)</sup>하여 여전히 한자, 한문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이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한자나 한문을 어문정책에서 점차 배제하는 근거로 삼았다.<sup>14)</sup>

‘일정한 기간 한자를 병용’한다는 조항의 ‘併用’은 갑오개혁 때의 ‘混用’과는 다른 말이다. 해방을 맞은 해 조선어학회에서는 ‘한자폐지 발기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여 ‘초등교육에서 한자를 뺄 것’ 등을 건의하였고, 11월에는 미군정청 학무국에서 한자 사용 폐지와 초등·중등 교과서는 전부 한글로 하되, 다만 필요에 따라 한자를 ‘도림’ 안에 넣어 적도록 하는 것을 주장하였다.<sup>15)</sup> 여기에서 말하는 ‘도림<sup>16)</sup>’이 바로 한글 뒤에 괄호를 넣어서 한자를 적게 하는 한자 병용의 방법이다.

이 법조문으로부터 어문정책에서 한자는 ‘도림’ 속으로 들어가고 한글 전용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sup>17)</sup>

### 3) 국어기본법과 한글전용

1948년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이후 어문정책은 專用과 併用을 오가

13) 이돈석, 앞의 논문, p.92. 1949년 11월 5일 제33차 국회 본회의에서 임영신 의원이 발의하였다.

14) 진재교, 「고전문학에서의 한문교육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11호, 한국어교육학회, 2003, p.376.

15) 정재철, 앞의 논문, p.39.

16) ‘도림’이란 순 우리말로 ‘뿔음표’에 해당하며, 한자어로는 괄호(括弧)이다.

17) 이 이후에도 1961년 12월 군사정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모든 간행물에서 한글 전용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개정이 좌절되기도 하였다.(이돈석, 앞의 논문, p.127.) 1970년 1월의 한글 전용 교과서 개편, 1972년 한문과 신설, 1975년의 중·고등학교 국어, 국사 교과서 한자 병용 조치 등 혼란스러운 어문정책을 살필 수 있다.

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혼란으로 빠져 들었다. 이후 국어사용과 관련하여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에 ‘국어의 발전 및 보급’ 항을 두어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가 2005년 ‘國語基本法’이 제정되면서 그 조항은 모두 삭제되었다.

국어기본법은 그동안 국어 사용에 관한 입법 의지를 실행한 것으로, 2004년 12월 29일 국회의 의결 후, 2005년 1월 27일 공포되었고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이 공포되면서 ‘한자’라는 용어가 포함된 1948년 제정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고, 한글전용으로 한층 강화된 어문정책을 전개하였다.

#### 제1장 총칙

(중략)

제3조(정의)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중략)

제14조 (공문서의 작성) ①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중략)

제18조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sup>18)</sup>

국어기본법은 국어를 한국어로 지칭하고 있으며, 한국어는 한글임을 밝히고 있다. 제14조에서 공문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여<sup>19)</sup>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8)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국어기본법(법률 7368호)

19) 국어기본법 시행령(2005.7.28)에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자 병기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또, 제8조의 국어심의회 분과위원회의 어문규범분과위원회에서는 ‘한자의 자형(字形)·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을 심의<sup>20)</sup>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제화는 어문정책에서 한글 중심, 한글일변도의 정책임을 알 수 있으며, 한자와 관련된 사항도 모두 국어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어기본법에 대한 찬반론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과거의 한글전용론과 국한문 혼용론의 극한 대립은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여전히 한글을 민족주의나 애국과 연관시키는 바람에 발전적인 제안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지금까지 어문정책의 변화를 보면, 갑오개혁 때의 어문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은 한자·한문에 대한 배타성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것에 대한 열망의 중심에 한글이 서게 되면서 이후 한자·한문과 한글은 배타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해방이후 어문정책 입안자들은 곧 우리 국어교육의 실행자였으므로, 국어와 한자·한문은 상호 배타적인 존재로 비취질 수밖에 없었다.

## 2. ‘교과’에서의 국어과와 한문과의 역사

개화기 신식학교가 등장하면서 교과명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과거제도에서 중요시되던 한문 전적들은 서당이나 성균관 등에서는 여전히 유효했지만 신식학교에서는 점차 서구의 교과목으로 변화했다.

1876년 개항을 시작으로 일본을 다녀온 修信使와 紳士遊覽團은 諺文 교육의 실시를 주장하고, 孔孟聖賢의 책으로부터 서양의 좋은 책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가르칠 것을 주장한다.<sup>21)</sup>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사립학교인 元山學舍가 설립되고, 외국어 교육기관인 同文學, 육영공원

20) 국어기본법 시행령(2005.7.28) 제8조 1항.

21) 남궁원, 「韓國 開化期 漢文科 教育의 展開 過程과 教科書 研究」,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p.11-13.

이 설립된다. 원산학사(1883년)의 문예반은 經義를 가르쳐 한문을 습득하도록 하였고 다른 과목들도 대체로 한문으로 된 교재를 통해 익혔다.<sup>22)</sup> 육영공원(1886년)에서는 매일 ‘讀書’와 ‘習字’ 시간을 두고 있다. 여기서의 독서와 습자는 國文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한문 원전의 독서와 한자의 습자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갑오개혁 이전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배재학당(1886년)은 영어뿐만이 아니라 漢文과 諺文을 가르쳤다. 학교에서 교과로 사용된 최초의 ‘국어’ 과목은 배재학당의 ‘諺文’이며, 한문전적 학습 과목을 ‘漢文’으로 명명하여 다른 여러 과목과 함께 배치한 것도 이때부터이다.<sup>23)</sup>

국어 과목이 차츰 드러나는 가장 큰 계기는 갑오개혁이었다. 과거시험 폐지를 필두로 고종의 공문서 국문위주 작성 중시와 과거제 대신 실시된 銓考局條例의 시험 과목에 ‘國文’이 포함된 것이었다.

갑오개혁 후 설치된 學務衙門은 설립 직후인 1895년 7월 19일 ‘小學校令(칙령 제145호)’을 공포하였고, 8월 12일에는 ‘小學校 校則大綱’을 반포하였다. 심상과와 고등과로 나뉘어 ‘독서’와 ‘작문’, ‘습자’ 등의 과목이 있었고, 이를 ‘국문 독서’와 ‘한문 독서’, ‘국문 작문’과 ‘한문 작문’으로 나누어 가르쳤던 것이다.

심상과에서 독서와 작문 과목은 모두 ‘국문의 단문과 近易한 한문과 交用하는 문장’을 학습하도록 하였고, 고등과에서 독서와 작문 과목은 모두 ‘한자와 交用하는 문장’과 함께 단어, 단구, 단문 등을 통해 국문 사용법과 어구의 용법을 학습하도록 하였다.<sup>24)</sup> 이를 통해 보면 국문과 한문은 과목으로 세분하지 않고 ‘독서’와 ‘작문’ 과목 속에서 함께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 한성사범학교(1895년)에서는 국문과 한문을 분리하여 과목을 편성하였고 ‘習字’ 과목에서는 楷行草의 三體 및 그 교수법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22) 남궁원, 위의 논문, p.19.

23) 남궁원, 위의 논문, p.22.

24) 정재철, 앞의 논문, pp.36-37.

이 외에도 외국어학교(칙령 제88호) 입학시험 과목에 ‘국문독서’, ‘국문작문’, ‘한문독서’, ‘한문작문’ 과목이 있었고, 1개월 과정인 種痘醫養成所(1895년) 입학시험 과목에 ‘한문작문’, ‘국문작문’, ‘습자’가 있었으며, 1년 연한의 무관학교 모집 시험에도 “한문으로 자기 의견을 진술할 만 한 자를 뽑는다.”고 했다. 법관양성소에도 ‘한문작문’과 ‘국문작문’ 시험이 있었다.<sup>25)</sup>

광무개혁(1897년) 이후 1899년 4월 4일(칙령 제11호)의 중학교관제 공포로 중학교 학제가 신설되는데, 학부령 제12호(1900년)에는 심상과 4년, 고등과 3년을 합하여 7년의 수업 연한을 규정하였다. 심상과의 과목에 ‘독서’와 ‘작문’이 있고, 고등과에는 ‘독서’ 과목이 있다.<sup>26)</sup>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해 일제의 통감부 정치가 시작되었고, 통감부는 1906년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개정하여 수업 연한을 줄임으로써 고등교육의 기회를 차단하고자 하였다.<sup>27)</sup> 1906년 보통학교령을 통해 독서, 작문, 습자를 ‘國語’로 합하고, 일어, 한문 등의 과목을 편성하였다. 이후로 각 학교에 ‘국어’가 교과목 명으로 나타나게 된다. 1909년 개편된 보통학교 교과목에서는 ‘國語及漢文’으로 통합된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8월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모든 교과서를 일본어로 기술하게 하였으며, 일본어가 국어가 되고 기존의 국어는 조선어로 강등되었고, ‘朝鮮語及漢文’으로 통합되었으며, 時數도 일본어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에는 일본의 회유정책기로 한문을 조선어와 분리시키고, 조선어와 일본어를 같이 필수과목으로 설정하였다.<sup>28)</sup> 이는 3·1운동 이후 국문운동으로 독립 운동을 펼친 한글세력에 대한 무마책일 수도 있고, 일본어를 거부하는 광범위한 보수층을 일본

25) 국가교육과정 사이트(<http://www.ncic.re.kr>) 참조.

26) 국가교육과정 사이트(<http://www.ncic.re.kr>) 참조.

27) 국가교육과정 사이트(<http://www.ncic.re.kr>) 참조.

28) 이 때, 한문은 학교별로 조선어나 일어와 결합되기도 하고, 보통교과 고등과의 경우에는 隨意과목으로 격하되기도 하였다.

어 교육에 끌어들이기 위한 술책일 수도 있으며, 차후 한글 말살 정책 시 반발의 강도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었다. 이 불행한 동거가 결국 광복 이후 한문이 집요하게 한글단체에게 배격된 중요한 빌미가 되었던 것이다.<sup>29)</sup>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1938년 3월 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한다. 이 때 조선어는 형식상 소학교에서 2~3시간, 고등여학교나 사범학교에서 1~2시간 수업을 허가하였으나 隨意과목으로 거의 선택을 못하도록 하였다. 한문은 그나마 소학교 일본어 시간에 國語及漢文으로 존재하게 된다.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기에는 전시 체제로 인해 조선어 과목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사범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일제 강점기의 한문 과목은 國漢混用文과 和漢混合文의 부속품으로 활용되어<sup>30)</sup> 한자와 한자 어휘 교육에 활용되었지만, 그로 인해 한문과 국어의 離隔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광복이후 교수요목기(1945~1954)에는 국어과목이 교과목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일제 강점기에 심한 탄압을 받아온 조선어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문맹률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국어과목의 시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국어과목이 강화된 것에 비하여 한문은 교수요목(1946년 9월) 어디에도 근거를 찾기 힘들었다. 다만 1951년 4월 28일 ‘학습지도 요항과 한자 문제’에 관한 사항에서 초등학교 4학년 300자, 5학년 300자, 6학년 400자를 가르치도록 하고, 1951년 9월 ‘常用一千字表’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에 실행하던 한자교육을 제한하는 조치에 불과하였고 한문과목은 오히려 일제 강점기 때보다 퇴보하여 과목에 포함되지도 않게 되었다.<sup>31)</sup>

29) 황위주, 「국·한문의 전통과 현실적 교육 상황」, 『한문교육연구』 제22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pp.203-204.

30) 정재철, 앞의 논문, p.38.

31) 황위주, 앞의 논문, pp.206-207. 물론 이때 일부중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상

이후 교육과정기에서 국어는 필수가 되었고 한문과목은 반대의 길을 걷게 된다.

1차 교육과정기(1954~1963)에는 한문과목이 존재하지 않았고 초·중학교에서는 국어교과에서 수업 중에 학습했을 것이라 추정하며, 고등학교는 ‘국어(필수)’와 ‘국어(선택)’이 있는데, 국어(선택) 과목은 ‘현대문, 고전, 문법, 어학사, 문학사, 한문’으로 이루어 졌다.

2차 교육과정기(1963~1973)에는 초·중학교의 국어와 고등학교 인문계와 실업계의 ‘국어 I’, ‘국어 II’, 자연계의 ‘국어 I’로 나뉘는데 인문계 ‘국어 II’에 ‘문법, 한문, 고전, 작문’ 과목이 있고 실업계에는 ‘한문’과 ‘작문’이 있었다.

교수요목기로부터 2차까지의 내용을 보면 초·중학교에서는 한자, 한자어 중심의 일상생활 활용 한자어를 가르쳤고, 그나마 고등학교에서 문장이나 운문을 한문에서 배운 것으로 파악된다.

3차 교육과정기(1973~1981) 이후 한문은 독립교과로 설정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문과’라는 명칭으로 부를 수 있다. 이후로 한문은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필수교과가 되거나 선택교과가 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한문과목과 국어과목의 운명을 시대별로 검토해 보았는데, 개화기를 거치면서 국문과목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경서 강독 중심이던 한문도 ‘한문’이라는 과목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통합 교과에서 일제 강점기의 분리 교과로, 해방 후 다시 국어 속의 통합 교과가 되었다가 3차 교육과정기를 통해 분리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 Ⅲ. 한문교과와 국어교과의 상보성 내용

한문교과와 국어교과의 관계는 현재로만 놓고 볼 때, ‘不可近, 不可遠’

관없이 일부 한문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논문의 각주 26) 참조.

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교과내용이나 교과 상호간의 도구적 역할로 보면 不可遠이지만, 어문정책으로 보면 不可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II장에서 ‘不可近’으로 변한 과정을 탐구하였다면, III장에서는 ‘不可遠’의 근거를 살피고자 한다.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국어교과와 한문교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한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을 때부터 서로의 필요에 의해 상보적 관계가 이루어졌으며, 교육과정의 우리나라에 정착된 이후 현재까지도 여러 면에서 상보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이 장에서는 교육과정 내용체계, 교과서 서술 내용, 평가면에서의 상보적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교육과정 ‘내용 체계’ 면

국어과와 한문과의 교육과정을 검토해보면 각 과목의 학습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관된 내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갑오개혁 이후 신식 학제의 교과목이었던 ‘讀書’, ‘習字’ 과목에는 한문과 국어가 분화되지 않고 지도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와 한문과의 ‘내용 체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상호 관련성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sup>32)</sup> 여기서는 국어과의 대영역을 기준으로 한문과의 연관성을 살피고자 한다.

‘공통교육과정’의 ‘국어’ 과목은 초등학교 6개년과 중학교 3개년의 국어과 교육과정이다. ‘공통교육과정’ ‘국어’의 내용 체계는 대영역이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5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여기서 한문과와 관련성이 많은 영역은 ‘읽기, 문법, 문학’의 3개 영역으로 볼 수 있다.<sup>33)</sup> 아래 표의 내용은 한문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범위를 넓혀서

3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과목은 공통교육과정의 ‘국어’와 선택교육과정의 ‘국어 I, 국어 II,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을 대상으로 하였다.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만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제시한 내용이다.

<표 1> 공통교육과정 ‘국어’ 과목의 ‘한문’ 과목과 관련 있는 하위 영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기-(지식)읽기의 본질과 특성, 글의 유형, 읽기와 맥락</li> <li>· 읽기-(기능)낱말 및 문장의 이해, 내용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li> <li>· 읽기-(태도)가치와 중요성, 동기와 흥미</li> <li>· 문법-(지식)국어의 구조</li> <li>· 문법-(탐구와 적용)국어생활의 점검과 문제해결</li> <li>· 문학-(지식)문학의 본질과 속성, 문학의 갈래</li> <li>· 문학-(수용과 생산)작품 이해와 해석, 작품감상, 작품 비평과 소통</li> </ul> |
|--|

국어과와 한문과는 교육과정에 모두 ‘읽기’가 있다.<sup>34)</sup> 국어과의 읽기는 모국어로서 어렸을 때부터 익히던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를 익히는 것이라면, 한문과의 읽기<sup>35)</sup>는 적어도 갑오개혁까지는 문자언어 면에서는 모국어적 경향을 지녔지만 현재는 한자어의 이해를 위해 독음을 하거나 한문전적의 풀이, 독해를 위한 읽기에 해당한다. 국어과와 한문과의 읽기는 읽기 텍스트 면에서 동일한 부분이 있고, 과정이나 방법 등에도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성을 국어과의 교육과정 내용을 통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

33) 쓰기 영역의 경우도 연관성을 도출할 수 있으나 한글과 한자라는 대상이 다르고, 한문과의 경우 고문 전적에 대한 독해 중심의 과목으로써 작문의 단계를 설정하지는 않으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34) 영어나 제2외국어 교육과정에도 ‘읽기’ 영역이 있다. 언어기능으로써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가 있으며, 읽기에서는 알파벳 읽기로부터 어구나 문장 읽기, 낱말이나 어구의 의미 이해, 글의 중심 내용 파악, 세부 내용 파악, 논리적 관계 파악, 맥락 파악 등으로 계열성을 지니고 있다.

35) 2007 개정 교육과정 대영역 ‘한문’의 하위 영역으로 ‘읽기’, ‘이해’, ‘문화’가 있었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영역에 ‘독해’를 두어 하위영역으로 ‘읽기’, ‘이해’를 두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읽기는 독해의 1차 영역인 풀이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2009 개정교육과정의 ‘읽기’는 소리 내어 읽기와 끊어 읽기로 제한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대영역인 ‘독해’가 국어과의 읽기와 가장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공통교육과정 국어 ‘읽기’와 중학교 한문 ‘독해’의 비교

국어과 교육과정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중학교)
교육과정 내용	학교/학년	
1222.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초1~2	한9111.단어, 구절, 문장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1223.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초1~2	한9112.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알맞게 띄어 읽을 수 있다. 한9113.토의 구실에 유의하여 글을 끊어 읽을 수 있다.
1224.글의 분위기를 살려 효과적으로 낭독하고 읽기의 재미를 느낀다.	초1~2	한9111.단어, 구절, 문장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1226.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초1~2	한9121.문맥을 고려하여 단어, 구절,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424.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초3~4	한9122.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1621.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다.	초5~6	한9121.문맥을 고려하여 단어, 구절,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625.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한다.	초5~6	한9123.글을 읽고 지은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2928. 글의 표현 방식을 파악하고 표현의 효과를 평가한다.	중1~3	한9126.글에 나타난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위 표를 보면 국어과의 ‘읽기’와 한문과 ‘독해’의 연관성을 살필 수 있다. 국어과는 초등학교 1~2학년부터 계열성을 갖고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소리 내어 읽기, 띄어 읽기, 낭독, 대강의 내용 간추리기, 중심생각 파악하기, 문맥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 파악하기, 표현방식을 파악하기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교되는 항목간의 유사성은 표를 통해 잘 드러난다. 국어과의 ‘효과

적인 낭독(1224)’은 한문과의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한9111)’와 연관이 있고, 국어과의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은 확인한다(1226)’는 한문과의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 구절,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한9121)’와 유사하다. 초등학교 5~6학년의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다(1621)’에는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한문과의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학년이 나뉘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열성 자체를 논하기는 어렵지만<sup>36)</sup> 학습내용 성취기준은 어느 정도 계열성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중학교 한문과의 교육과정은 언어적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국어과의 기능과 유사성이 있다. 이로부터 볼 때, 국어과는 모국어로서의 읽기 단계를 최대한 고려한 내용이며, 중학교 한문은 처음으로 과목을 대하는 학생들에게 국어에서의 모국어 읽기 단계처럼 초급 단계 기능들을 내용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7)</sup>

이를 통해 본다면 초등학교 국어의 읽기 내용은 중학교에서 한문을 배우는 학생들의 독해 영역을 학습하기 위한 지식이나 기능면에서 선수 학습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른 언어 습득에도 동일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포함한 여타의 외국어들이 주로 단순한 언어기능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읽기’라고 한다면, 한문은 표현의 효과에 대한 심층적 이해력과 감상력까지를 요구하는 심화된 ‘읽기’이므로 국어과의 ‘읽기’와 상관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36)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중학교 1~3학년으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편성했는데, 이에 따른 성취기준의 제시에는 단순히 1학년 300자, 2학년 600자, 3학년 900자를 기준으로 정하기만 하였다.

37) 초등학교 한자·한문 교육은 초등학교 국어의 읽기나 문법과 연계된 교육과정의 내용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차후 초등학교 한자 교육과정이 조정된다면 중등학교의 한문 교육과정도 계열성을 보다 확대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 2) 문법

문법은 문장을 만드는 법칙이며 한 언어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말한다. 문법이 없다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문법을 알면 보다 효율적인 구어, 문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문은 일찍이 多讀에 의한 文理 터득이 주요한 문법 습득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한문이 일상생활화 되어 있지 않는 현재의 학생들에게 ‘多讀=文理’라는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문법은 언어에 내재해 있는 원리와 규칙이며, 국어 문법은 개별 언어로서의 국어에 내재해 있는 원리와 규칙을 가리킨다. 이러한 원리와 규칙은 언어활동에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저 지식 체계이다. 문법은 국어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국어를 통합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기여한다. 문법 능력은 국어 능력의 토대로서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등과 관련을 맺으며, 국어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우고 국어 의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sup>38)</sup>

국어과에서는 문법이 4가지 영역으로 대표되는 국어 능력의 토대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의 국어 능력이 문법 지식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과의 문법에 해당하는 것이 한문과는 ‘한문지식’의 내용이다.

한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어의 짜임, 품사, 성어, 문장의 구조, 문장의 유형 등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지식을 익혀 한문을 바르게 풀이하고 이해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sup>39)</sup>

38) 교육과학기술부a,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5], 2012, p.117.

39) 교육과학기술부b,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17], 2012, p.6.

국어과에서는 국어의 이해력과 구사력을 위해 문법이 필요하고, 한문과에서는 한문의 풀이를 위해 문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진술 범위로 보면 국어과의 범위는 국어과의 4대 영역을 다 포함하여 제시하였고 한문과는 독해에 국한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문과는 국어과에 비해 文言的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각 영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짜임, 구조, 유형 등의 지식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어과보다 문법 관련 용어가 교육과정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표 3> 공통교육과정 국어 '문법'과 중학교 한문 '한문지식'의 비교

국어과 교육과정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중학교)
교육과정 내용	학교/학년	
1241.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초1~2	한9311.한자의 形·音·義를 알 수 있다. 한9312.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 수 있다. 한9314.필순의 일반적인 원칙에 맞게 한자를 바르게 쓸 수 있다.
124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초1~2	
1244.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초1~2	한9331.문장의 기본 구조를 알 수 있다.
1441.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초3~4	한9312.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 수 있다.
1443.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초3~4	한9321.단어의 짜임을 알 수 있다.
1444.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초3~4	한9313.한자의 部首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중학교)
교육과정 내용	학교/학년	
1445.문장을 끝내는 다양한 방식을 알고 자신의 의도에 맞게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초3~4	한9332.평서문·의문문·명령문·감탄문의 특징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
1642.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초5~6	*한9221.언어생활에 사용된 한자 어휘를 이해하고 뜻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한9323.성어의 겉뜻과 속뜻을 이해할 수 있다.
1643.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	초5~6	*한9221.언어생활에 사용된 한자 어휘를 이해하고 뜻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1644.절을 연결하는 다양한 방식을 알고 표현 의도에 맞게 문장을 구성한다.	초5~6	
1645.국어의 기본적인 문장 성분을 이해하고 성분 사이의 호응 관계가 올바른 문장을 구성한다.	초5~6	한9331.문장의 기본 구조를 알 수 있다.
2945.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한다.	중1~3	한9321.단어의 짜임을 알 수 있다. 복합어 등
2946.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중1~3	한9322.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알 수 있다.
2947.문장의 구조를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구조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중1~3	한9331.문장의 기본 구조를 알 수 있다.
2948.어휘의 유형과 의미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중1~3	
2949.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중1~3	

국어과의 1241과 한문과의 9311, 9312는 국어의 음운체계에서의 발음과 관련이 있다. ‘바르게 읽는다’는 차원에서는 ‘읽기’ 영역과도 관련이 있다. 한문과는 한자 한글자의 음과 뜻에 관심이 있으므로 連音이 되는 단어를 학습하는데 한문과의 한자 학습이 국어 어휘를 익히는데 상보성을 가질 수 있다.

국어과의 1241의 성취기준에는 ‘한글 낱자를 획순에 따라 쓰기<sup>40)</sup>’가 포함되어 한글 획순을 정확하게 쓰는 것을 문법의 항목에 넣고 있다. 한 9314도 일반적인 쓰기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다. 국어에도 쓰기의 법칙이 있지만 한문과의 쓰기 법칙은 한자의 획수가 다양하고 많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하나의 법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어과의 1243에 제시된 낱말의 의미 관계에서는 비슷한 말, 반대말 등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므로 차후 한문과의 상대어, 유사어 등의 사전 학습이 될 수 있다. 국어과의 1443의 낱말 확장 방법은 한자어와도 관련성이 높다. 예를 들어 ‘국(國)’이 ‘나라 국’임을 알고 앞뒤에 넣어서 다양한 새로운 어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자 학습이 국어의 조어력을 높일 수 있는 상보적인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 1444에서 사전 사용에 대해 언급하는데, 초등학교 3~4학년이면 국어사전 사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스스로 단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한문도 언어 교과의 특성상 사전을 찾는 방법 습득이 꼭 필요한데 이러한 사전 사용법에 대한 기본을 먼저 국어과에서 익히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는 사전 사용방법 뿐만이 아니라, 다음의 내용도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1444-1. 동사, 형용사의 다양한 활용형을 기본형으로 바꿀 수 있다.

1444-2.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sup>41)</sup>

40) 교육과학기술부c,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초등학교 1~2학년』, 2012, p.33.

41) 교육과학기술부d,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초등학교

이를 본다면 초등학교 3~4학년에 이미 품사를 인지하게 되고, 동음이의어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sup>42)</sup>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한문 학습 시 필요한 선수학습 내용이 된다.

국어과 교육과정 1445에서는 문장을 끝내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는데<sup>43)</sup>, 이는 한문과의 문장의 유형과 관련성이 있다. 벌써 초등학교 3~4학년에 문장의 유형에 대한 개념 형성이 되어 한문과 선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어과 1643, 초등학교 5~6학년에 ‘한자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이에 대한 학습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국어과 1645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성취기준이 제시된다. 국어과의 1645를 바탕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의 용어가 등장하며 한문과의 한9331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어과 중학교 과정에서는 2945에서 단어의 짜임이 나오고, 복합어의 개념에서 합성어와 파생어가 제시되며, 2946에서 품사의 개념, 특징 등이 제시된다. 그리고 문장의 구조에서 관형어, 부사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국어과의 문법과 한문과의 한문 지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제시된 문장의 구조에 대한 개념은 차후 중학교에서 한문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한문 문장의 틀을 이해하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보적인 역할을 한다.

비록 국어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내용이 언어 습득의 일반적인 과정이지만 한문과에 있어서는 다른 외국어에 비해 교과간의 상관성이 매우

교 3~4학년』, 2012, p.35.

42) 그러나 이때의 동음이의어는 단순히 한자어를 한자의 뜻과 연관시키지 않고 국어사전적 의미 중심으로 풀이를 하여 한문과에서 동음이의어 지도 방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43) 문장을 끝내는 방식에 대한 예로 교과서에는 ‘묻는 문장, 권유하는 문장, 시키는 문장’ 등으로 표현하였다.

높다고 할 수 있다.

### 3) 문학

예로부터 인문학의 큰 범주를 ‘文史哲’로 표현하였다. 학자는 문사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해 왔다.

국어과에서는 문학을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발전에 가치가 있는 내용을 언어로 나타낸 예술이며, 그 심미적 표현의 핵심이 형상화에 있다.”<sup>44)</sup>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국어과의 문학에 대한 개념은 언어 예술, 가치성, 표현성에 중점을 두었다. 한문과에서는 선인들이 창작한 한문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분야에 관심이 있으므로 문학을 ‘심미적 표현’ 보다는 ‘심미적 향유’<sup>45)</sup>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국어과에서는 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어과의 한 영역으로 분리하였다. 그러나 한문과에서는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내용 체계의 ‘독해-이해-감상하기’에서 문학적인 요소를 드러내고 있으며, 고등학교 선택과정 ‘한문Ⅱ’에서 ‘문화’의 하위영역으로 ‘한문학의 이해’를 포함시켰다.

국어과에서는 문학의 갈래를 서정, 서사, 극, 교술의 4개 영역으로 나눈다. 서정분야에는 시가 있고, 서사분야에는 소설이 있다. 극에는 연극이 있고, 교술에는 가전체, 악장, 가사, 수필 등이 있다.

국어과의 문학 갈래 기준으로 한문과와 관련성을 보면 서정분야는 한시에 해당하고 서사에는 한문소설, 교술에는 가전이나 수필 등이 해당된다.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볼 때, 국어과는 공통교육과정 ‘국어’를 통해 문

44)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2009, p.240.

45)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p.4.

학의 기초를 다지고, 선택과정의 ‘문학’ 과목을 통해 심화된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문의 경우 선택과목의 한계로 인해 중학교 과정 ‘한문’이 기초적인 문학 학습 단계가 되고 고등학교 선택과정의 ‘한문 I’에 서는 단계가 생략된 채 비약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은 교육과정 문학 관련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한문과의 경우 문학에 관한 내용은 고등학교 선택과정까지 확대하여 제시하였다.

<표 4> 국어의 문학과 한문의 문학 관련 내용 비교

국어과 교육과정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중학교)
교육과정 내용	학교/학년	
1251. 동시를 낭송하거나 노래, 짧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초1~2	
1254. 작품 속 인물의 마음, 모습, 행동을 상상한다.	초1~2	
1451. 짧은 시나 노래를 암송하거나 이야기를 구연한다.	초3~4	
1452.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부분에 유의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초3~4	
1653. 작품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의 특징과 효과를 이해한다.	초5~6	한9126. 글에 나타난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1654. 작품 속 인물, 사건, 배경의 관계를 파악한다.	초5~6	한 I 127.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2951. 비유, 운율, 상징 등의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중1~3	한9124. 한시의 형식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한9126. 글에 나타난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2953.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중1~3	한9126. 글에 나타난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	학교/ 학년	
2954.표현에 드러나는 작가의 태도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중1~3	한9123.글을 읽고 지은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한 I 124.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는 글을 읽고 사건이나 인물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2956.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한다.	중1~3	한 I 127.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한 I 128.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전적인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한시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29510.문학이 인간의 삶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이해한다.	중1~3	한9211.선인들의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한 I 211. 선인들의 지혜를 내면화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파악하여, 긍지와 주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310114.문학 갈래의 개념을 알고 각 갈래의 특징을 이해한다.	고 국어 I	*한 I 122, 한 I 123, 한 I 124, 한 I 125, 한 I 126
310214.문학이 정서적, 심미적 삶을 고양함을 이해하고 작품을 수용, 생산한다.	고 국어 II	한9126.글에 나타난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310215.문학이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비평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한다.	고 국어 II	한 I 211. 선인들의 지혜를 내면화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파악하여, 긍지와 주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310513.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고 문학	

국어과 초등학교 1~2학년의 1251은 동시 낭송을 통해 문학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보통 朗讀은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고, 朗誦은 감정을 이입하여 음률에 따라 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읽기’에는 낭독이 필요하고, ‘문학’에는 낭송이 필요하다. 한문과에서도 읽기의 한 방법으로 낭독을 강조하고 있는데, 낭독은 일종의 감정 이입방법으로 낭송과 유사하다. 국어과의 문학 분야 내용에 낭송을 넣은 것은 낭송이 문학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흥미요소가 있기 때문으로, 한문과에도 ‘聲讀’을 문학 요소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국어과 1254, 1451, 1452 등도 재미, 흥미, 감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어과 1653에서는 비유적 표현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으며, 한문과 한9126과 관련성이 있다. 국어과 1654, 2956 등은 문학 작품 속의 인물, 사건, 사회·문화·역사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느 한 교과(국어나 한문)에서 먼저 배우는 문학 작품 속의 인물, 시대 상황 등은 다른 교과의 배경지식이 되어 선수학습의 효과가 있다.

국어과에서는 한시 단원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문과의 한시의 특징에 대한 설명 등이 국어과의 한시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문과의 문학 수업은 국어과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학수업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한문교육용 1,800자나 배우는 분량으로 볼 때, 많은 수의 문학작품을 제시하거나 작품 전체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어과 29510에서는 문학과 인간의 삶을 연결시키고 있다. 한문과는 대영역 ‘문화’에서 작품 속에 드러난 선인들의 가치관을 언급하여 관련성이 있다.

고등학교 한문 I의 경우 읽기 영역에서 한문의 각 문체에 대해 내용영역을 5개(한 I 122, 한 I 123, 한 I 124, 한 I 125, 한 I 126)로 나누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분은 국어과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국어 고전학습을 위한 선수학습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어과와 한문과의 교육과정 문학관련 내용 속에는 상보적인 요소가 많다. 국문학의 하위 범주에 한문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 부분에서는 관련성이 매우 높다. 다만 한자를 지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와 문학을 이해하는 범위의 깊고 열음이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 한문과와 국어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국어과의 5대 영역에서 읽기, 문법, 문학 분야는 한문과와의 상관성이 매우 높고, 서로 교과에게 보완이 될 만한 내용이 많다. 국어과의 초등학교부터 계열적인 내용 구성을 본다면 중학교부터 배우는 한문과의 선수 학습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다.

국어과에서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배우는 비슷한말, 반대말, 상하위어 관계, 문장의 기본 구조는 한문과의 단어 학습과 문장학습에 스키마(Schema)를 형성한다. 또 국어과는 전 학년에 걸쳐 편제되어 있으므로 계열성을 갖고 읽기나 문법 문학의 내용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한문지식 습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한문과에서 한자의 음과 뜻을 통한 한자 익히기와 단어학습, 성어 학습은 국어과에서 올바른 한자어 읽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조어력이나 언어생활에서의 한자어 활용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문과의 성어의 유래나 한시학습, 한문 고전 작품의 학습은 국어과의 배경지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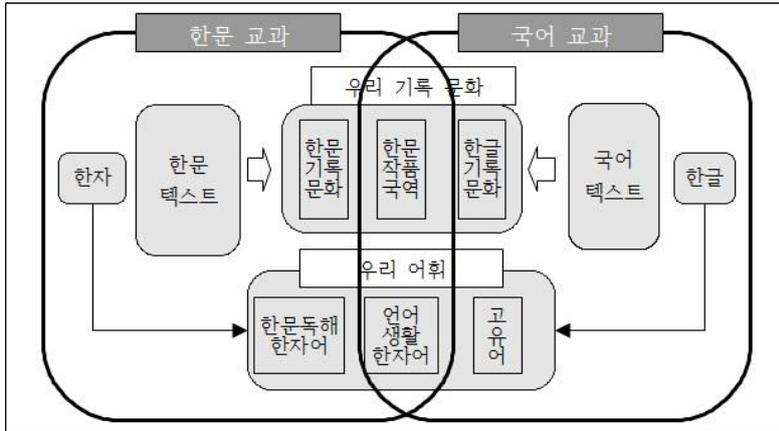
이는 국어과와 한문과가 계열성을 지닐 수도 있다는 것이며, 계열성을 지니므로 통합된 수업 형태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어과와 한문과의 교과 내용의 관련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6)</sup>

46) 이 표는 2013 한국한문고전학회 동계 학술대회 논문 발표 시 토론을 맡은 교원대 박상우 선생이 제안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표 5> 국어과와 한문과의 교과적 특성 비교



한문교과가 한자를 기본으로 한문텍스트를 구심점으로 하여, 이에서 파생되는 한문기록, 한문기록문화, 한문독해를 위한 한자어, 국어생활한자어를 범주로 둔다면, 국어교과는 한글을 기본으로 국어텍스트를 구심점으로 하여 국어기록문화를 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공통부분은 우리 기록문화 중 국역된 한문작품과 우리 어휘 중 언어생활을 위한 한자어 등으로 볼 수 있다.

또, 교육과정 내용을 통해 공통내용과 상보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표 6> 2009 개정 교육과정 국어, 한문의 내용 체계 상보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리 내어 읽기</li> <li>◦ 띄어 읽기</li> <li>◦ 글의 중심 내용 파악</li> <li>◦ 지은이의 의도 파악</li> <li>◦ 낱말의 확장 방법</li> <li>◦ 문장을 끝내는 방식</li> <li>◦ 일상생활 한자어</li> <li>◦ 문법 용어</li> <li>◦ 글의 표현 효과</li> <li>◦ 한문 고전 작품</li> </ul>	<p>상보성</p> <p>[국어과→한문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기와 문학교육의 체계성 : 흥미→이해→감상</li> <li>◦ 문법 용어나 문법 개념</li> <li>◦ 배경지식 활용으로 한문 독해에 활용</li> <li>◦ 국어의 어순을 한문 독해에 활용</li> </ul> <p>[한문과→국어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자 학습을 통한 읽기 능력 배양</li> <li>◦ 한자의 뜻을 활용한 단어 의미 이해</li> <li>◦ 한자성어의 이해</li> <li>◦ 배경지식 활용으로 문학 작품 이해</li> <li>◦ 한시의 형식 학습을 통한 한시 이해</li> </ul>
--	--	--

표에서 국어과와 한문과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것은 소리 내어 읽기부터 한문 고전 작품에 해당된다. 이를 바탕으로 두 교과와 상보적인 역할은 위의 표와 같다.

## 2. 교과내용 면

국어과와 한문과는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상보적인 내용이 많다. 이러한 상보성을 실제 교과서나 평가 내용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 1) 교과서의 한자표기

국어 교과서의 한자표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다.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한자 용어를 가능하면 쓰지 않으려 하고 있다. 5~6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예시 1>과 같이 어려운 한자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시 1> 초등학교 국어 읽기(6-2) 한자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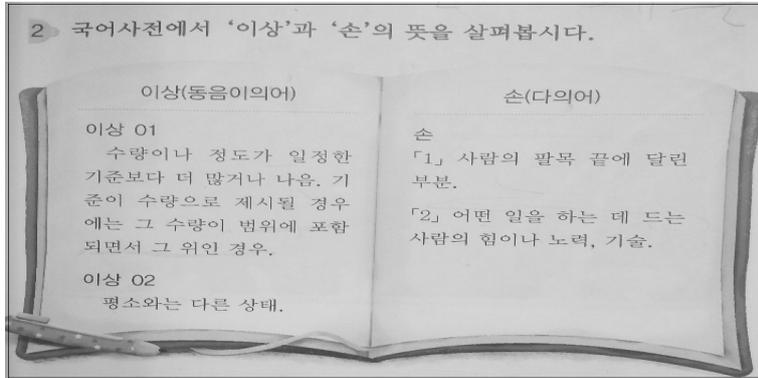
\*의탁 :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김.

위 예시는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에 의탁이라는 단어를 풀이해 놓은 부분이다. 교과서의 본문에 “선량하고 의탁할 곳 없는 백성은~”으로 이어지는데, 의탁(依託)을 설명하기 위해 교과서의 하단에 각주 형태로 제시한 내용이다. 이렇게 제시된 의탁은 한자의 뜻으로 이해하지 않는 이상,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김’이라는 긴 말로 뜻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의지할 의, 맡길 탁’으로 설명이 된다면 굳이 ‘어떤 것, 몸이나 마음’ 등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한자의 뜻대로 ‘의지하고 맡기다’로 풀이하여 의탁을 ‘의지하고 맡길 곳 없는 백성’으로 풀이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제시한 부분이 있다.

<예시 2> 국어 읽기 3-2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에 대한 설명



사전을 검색해 보면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언어’로 설명되어 있고, 다의어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라고 설명하면서 ‘다리’는 원래 ‘사람이나 짐승의 몸통 아래에 붙어서 몸을 받치며 서거나 걸거나 뛰게 하는 부분’을 가리키지만, ‘책상 다리’, ‘지겟다리’처럼 ‘물건의 하체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단어를 이른다고 설명하였다.<sup>47)</sup> 즉,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지만 전혀 다른 뜻의 말이고, 다의어는 소리가 같고 원래 의미에서 뜻의 변화가 일어난 경우를 말한다.

위 그림의 한글 내용만으로는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에 대한 개념구분을 예시를 보지 않으면 거의 알 수가 없다. 同音異義語는 발음이 같고 뜻은 다르다는 말이고, 多義語는 뜻이 많다는 말이니, 음은 같지만 뜻이 다르다는 것과 뜻이 많다는 것에서 차이를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다의어를 同字異義語로 표현한다면 ‘글자는 같은데 뜻이 다른 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검색 결과.

또, 동음이의어를 설명하는 ‘이상01’과 ‘이상02’를 ‘이상(以上)’과 ‘이상(異常)’으로 표현한다면 발음은 같지만 한자의 모양이 다르므로 뜻이 달라진다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에 대한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의 표현을 보아도 여전히 학생들은 국어사전식의 풀이에 의존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예시 3> 중3 국어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에 대한 설명

**다의어**  
하나의 낱말이 두 가지 이상의 관련된 의미로 쓰이는 낱말을 의미한다. 관련이 있는 의미 중에서 기본적인 핵심적인 의미를 중심 의미, 중심 의미가 확장되어 달라진 의미를 주변 의미라고 한다.

**동음이의어**  
소리는 같으나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낱말을 의미한다.

중학교 3학년 교과서의 다의어라는 말은 이미 굳어진 말로서 동자어의 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만약 처음 이러한 용어를 만들었던 사람이 동음이의어와의 구분을 원했다면 同字異義語, 異字同音異義語 또는 同字多義語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쉬웠을 것이다.

<예시 4> 중1 국어교과서 한자어 설명 예시

- 9. 염전: 소금을 만들기 위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논처럼 만든 곳.
- 10. 온실가스: 지구 대기를 오염시켜 일으키는 가스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가스를 말한다.

위 예시는 염전을 설명하는 각주로 염전을 이해하기 위해 ‘소금, 만든다, 위하다, 바닷물, 끌어들이다. 논, 만들다, 곳’ 등의 8개 단어를 사용했다. 한문과의 한자어 지도 방식을 채택하여 ‘소금 염’, ‘밭 전’의 형태를 취하면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자주 쓰지 않는 용어를 설명할 때에 더욱 두드러진다.

<예시 5> 중2 국어 교과서 한자어 뜻풀이 예시

- 1. 유희: 즐겁게 놀며 장난함.
- 2. 포충망: 벌레를 잡는 데 쓰는 둥근 테 모양의 그물.

위 예시에서 포충망(捕蟲網)도 ‘잡다, 벌레, 그물’이라는 3가지 뜻만 알면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을 ‘벌레, 잡다, 쓰다, 둥글다, 테, 모양, 그물’의 7가지 단어로 설명하여 풀이하고 있다.

한편, 한문과에서 사용하는 어휘 지도 방식으로 교과서 어휘를 설명한 곳도 있다.

<예시 6> 중3 국어 교과서 한자 병기 예시

- 1. 십시일반(十 열 십, 匙 숟가락 시, 一 한 일, 飯 밥 반): 밥 열 술이 한 그릇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쉬움을 이르는 말.
- 2. 상부상조(相 서로 상, 扶 도울 부, 相 서로 상, 助 도울 조): 서로서로 도움.

위 예시는 국어교과서의 문장에서 성어를 설명하는 각주이다. 십시일반을 단순히 병기만 하지 않고 한자의 뜻과 음을 제시하여 성어의 원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설명해 놓았다. 이러한 설명이 반복된다면 학습자들은 다른 한자어를 대할 때, 이전에 학습했던 한자의 뜻을 생각하면서 의미를 유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한문과에서 한자어를 교수·학습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문 교과서에도 국어과에 상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시 7> 중1 한문의 동자이음이의어의 예제

**1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

樂	{	(락) 즐기다	→ 快樂(쾌락)
		(악) 노래, 음악	→ 音樂(음악)
		(요) 좋아하다	→ 樂山樂水(요산요수)

위 내용은 한자의 여러 가지 뜻을 알고 단어의 음과 뜻을 지도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국어의 읽기와 관련이 있고, 언어생활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배운 학생들은 쾌락의 ‘락’과 음악의 ‘악’이 같은 모양을 가졌지만 음이 달라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 8> 중1 한문의 다의어의 예제

**2 뜻이 상대되는 한자**

<b>內</b> (내) 안	} — •	<b>內 外</b> : ① 안과 밖. ② 부부.
<b>外</b> (외) 바깥		

① 겨울에는 건물 **內外**의 온도 차이가 심하다.  
 ② 우리 부모님은 **內外**간의 사이가 무척 좋으시다.

위 내용은 상대되는 뜻이 모인 내외라는 단어를 학습하기도 하지만 문장 속에서 내외의 의미가 달라져 국어에서 다의어를 이해하기에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국어교과서와 한문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한자가 제시되지 않지만, 중학교 이후에는 어려운 한자어의 풀이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교과서는 한자의 훈과 음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기도 하였다. 한문과에서는 1800자 이외의 한자를 제시하는 것에 제한을 받지만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등에 병기되는 한자는 1800자 이외의 다양한 한자를 제시하여 오히려 한자를 제시하는 폭이 넓어 한자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어휘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2) 문법 학습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문법에 관한 기본 용어는 한문과 학습에 선행학습 요소가 된다. 중학교에서 한문을 처음 배우는 학생도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인해 곧바로 주어나 서술어 등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거부감이 없다.

<예시 9> 초 국어 읽기(6-2) 문법 용어 설명 예

◇ 동작을 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나는 바다를 보았습니다.’와 같은 문장에서 ‘나’는 동작을 하는 주어이고, ‘보았습니다.’는 주어에 호응하는 서술어예요.

◇ 동작을 당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바다가 보였습니다.’와 같은 문장에서 ‘바다’는 동작을 당하는 주어이고, ‘보였습니다.’는 주어에 호응하는 서술어예요.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읽기 교과서에는 ‘주어’를 ‘동작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서술어를 ‘주어에 호응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한문과 수업에서 주어나, 서술어 등의 용어 학습이 선수학습으로 국어과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물론 영어를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이러한 문법 용어들을 이미 학습 할 것이다. 영어가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반면에 한문과의 독해는 국어 능력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법 용어 학습은 한문과에 상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국어의 품사는 9개로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한문과의 품사는 10개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 등이 있다. 일찍이 문법 용어는 서구문법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 전래 되었고,<sup>48)</sup> 개화기 영어문법서에 품사의 용어가 이미 사용되었다. 1960년대 문법 파동<sup>49)</sup> 이후, 국어에서 한자어로 된 품사 용어를 사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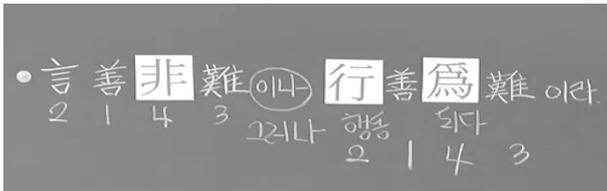
48) 중국의 마건충은 프랑스에서 유학하면서 서양의 라틴어 문법을 배우고 『마씨문통』(1898)을 저술하였고 이것이 한문 문법의 典範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서양과 일본의 문법에 영향을 받아 유길준의 국어문법서인 『조선문전』(1897), 원영의의 한문문법서인 『초등작문법』(1908), 영문법서인 이기룡의 『중등영문전』(1911)과 윤치호의 『영어문법첩경』(1911) 등이 발간되었으며 이때부터 품사나 문장에 관한 용어들이 사용되었다.(한중선, 한학성 논문 참조)

49) 해방 이후 국어 문법 용어가 일치하지 않아 1963년 문교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자문기관인 학교문법심의전문위원회에서 문법 통일안을 마련하였는데,

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이용하여 품사의 쓰임을 이해시키는 것도 유용한 방법일 것이다.

중고등학교 한문 수업시간에 독해의 과정을 보면 국어과의 문법과 공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시 10> 중학교 한문 수업 판서 화면 캡처



이 문장을 독해하기 위해 한문 교사는 한자의 뜻을 알고 한문 문법을 이해하여 문장을 풀이하며, 풀이된 내용을 국어 어법에 맞게 정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한문과는 다른 외국어과와 다르게 풀이 순서를 매우 중요시 한다. 그 이유는 한문과가 독해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영어나 제2외국어에 풀이순서를 묻는 문항은 거의 없다. 그러나 유독 한문과는 풀이순서를 묻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한문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풀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국어 문법 지식이 없으면 아래쪽에 쓰인 숫자는 단순히 외어야 할 내용에 불과하게 된다.

문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언어학습의 본말이 전도되어 지나치게 지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 그러나 문법적인 지식은 문장체계의 뼈대가 되므로 국어과와 한문과가 상보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다.

### 3) 문학의 공유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는 문학적 제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한자어로 된 문법 용어가 채택되었다. 이에 한글학회 중심의 학자들이 적극 반대하였고 이후 순우리말 용어를 쓰자는 말본파와 한자어를 쓰자는 문법파로 나뉘어 논쟁을 벌였으나 결국 한자어식 용어를 쓰기로 결정하였다.

운문인 漢詩는 말할 것도 없고 산문 중에도 史傳文의 傳이나 行狀, 雜記文, 實用文의 碑誌類, 哀祭類, 箴銘類, 贈序類, 書牘類 등은 모두 문학과 관련이 깊다.

한예원은 7차 고등학교 ‘한문’의 문학관련 소단원이 30.6%정도라고 밝히고 있다.<sup>50)</sup> ‘한문고전’ 과목은 이보다 많은 비율의 한문 문학작품을 수록하고 있었다. 7차 교육과정까지 중학교는 주로 한자나 한자어에 소단원의 내용이 많았으므로 문학류 소단원이 많지 않았으나 2007 개정교육과정부터 대영역이 한문 중심으로 변화했으므로 중학교부터 문학 관련 소단원이 등장하게 되며, 이전 교육과정기보다 많은 문학류 제제가 수록되었다.

한문과목 자체로 보면 7차 교육과정기까지 평균시수가 확보되던 시기에는 이러한 문학류 산문들이 많았지만 선택과목으로 변하면서 문학류 산문들이 줄게 되었고, 지문 자체도 이전에 비해 훨씬 축소되었다.

국어과와 한문과의 ‘한문학’에 대한 관점은 다르다. 한문과에서는 한문으로 기록된 모든 문학을 말하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록한 문학이 아니더라도 한문학에 포함된다. 실제로 한문 교과서에 실린 한시의 경우 중국 사람들이 지은 한시도 상당히 많다. 뿐만 아니라 각종 명문장도 중국의 고전이 많다. 그러나 국어과에서 말하는 국문학 속의 한문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록한 문학에 제한된다. 이로 인해서 두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생기게 된다.

국어과에서 말하는 우리 선조들의 창작 문학이 중국 문학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결국 선인들의 문학은 중국의 文史哲을 습득한 창조물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문과에서 배우는 많은 중국 작가들의 작품들이 국어과에서 배우는 문학 작품의 배경지식을 형성하기도 한다.

국어과와 한문과의 한문학 텍스트도 다르다. 국어과는 한문을 번역한 것이지만 한문과는 한문을 원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국어과에서는

50) 한예원, 『한문교육론 -반성과 전망』, 문자향, 2006, p.49.

한문 텍스트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현대 문학작품이나 번역문학으로도 문학적 지식과 문학적 소양, 그리고 문학적 표현을 대신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한문학을 대표하는 장르인 한시는 우리 선조들이 가장 널리 향유한 문학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한시 작품은 중세 국어의 변화상을 드러내는데 그치는 정도이다.<sup>51)</sup> 고대가요로부터 조선시대 한시까지 모두가 한자로 지어진 문학이므로 원전을 그대로 배워 그 정서를 느끼는 것과 번역된 한글로 정서를 느끼는 것은 작품 이해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평가 면

국어과와 한문과는 평가 장면에서도 연관성이 많았다. 교수 요목기부터 2차 교육과정기에 국어과의 일부였던 한문 교과서의 평가문항에는 한자의 음과 뜻, 허사를 활용한 漢作, 모양이 비슷한 한자의 비교 등이 있었고, 특히 한글을 한문 문장으로 변환하는 문제도 있었다.<sup>52)</sup> 대학입학학력고사 시기에는 국어 과목에 포함되어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30 문항이 출제되었으니<sup>53)</sup> 가히 국어와 한문은 ‘同舟而濟’의 길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차 교육과정기를 거치면서 각 교과과의 평가가 단순 지식형의 문항에서 사고력과 논리력을 추구하는 문항으로 변화되었다. 이 중 국어과나 사회과의 문항은 가장 큰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한문은 여전히 한자, 한자어 지식과 독해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51) 한철우·박영민·박형우·김명순·선주원·최숙기·가은아·이영진·신승은·김기열·박중임·최성아, 『고등학교 국어 상』, 『고등학교 국어 하』, 비상교육, 2010, pp.182-184. 참조.

52) 허연구, 「한문과 영역별 평가문항 유형의 연구」, 공주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p.67-68.

53) 허연구, 위의 논문, p.77.

1993년 이후 한문은 수능에서 제외되었으나 국어에는 여전히 한자가 포함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다.

다음은 2014 수능 국어 문항이다. 이 문항에서 병기된 한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37.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구무언(有口無言)    ② 일구이언(一口二言)  
 ③ 중구난방(衆口難防)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⑤ 횡설수설(橫說豎說)

이에 대해 학생과 국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문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sup>54)</sup>

**<학생 반응>**

- ㉠ 뜻을 이해하여 문제를 풀기에 수월하다.
- ㉡ 이 문제는 한문문제이다.
- ㉢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 ㉣ 어차피 한 문제 밖에 안 나오고 사자성어는 한자보다 한글로 알고 있다.
- ㉤ 의미를 어느 정도 유추하게 해 준다.
- ㉥ 사자성어 이해를 더 쉽게 해 준다.
- ㉦ 한자의 뜻으로 사자성어를 그대로 해석할 수 있다.
- ㉧ 한글로만 쓰여 있으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한자가 있으므로 해서 그 한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다.
- ㉨ 사자성어가 우리말의 의미해석에 도움이 된다.
- ㉩ 조금이라도 아는 한자를 활용하여 짚을 수 있다.

**<교사 반응>**

- ㉠ 일부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으나 한자를 아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자성어의 뜻을 유추하게 한다.

54) 논자가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 152명과 국어과 교사 11명을 대상으로 2013년 11월에 ‘병기된 한자의 역할’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 ㉠ 한자성어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
- ㉡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 주며, 모르는 단어의 경우 뜻을 짐작하게 도와 준다.
- ㉢ 학생들이 비록 몰랐던 한자성어라 할지라도 병기된 한자를 통해 그 뜻을 추리하여 문제를 풀 수 있다.
- ㉣ 사자성어의 한자를 알려주어 사자성어의 의미를 추론하게 한다. 동음이의어를 구별하여 의미파악을 원활하게 한다.

설문의 반응을 놓고 볼 때 병기된 한자의 기능은 첫째, 한글로 된 성어의 의미를 명확히 해주는 것과 둘째, 한자의 뜻으로 성어의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문과의 입장에서 두 번째의 의견은 한문과에서 가르치는 한자, 한자어가 국어과의 어휘 이해에 상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은 한자어의 병기가 뜻을 유추하는데 훨씬 유익하다고 답하고 있다.<sup>55)</sup> 그렇다면 이 문항은 한문시간에 배운 한자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즉, 국어 어휘학습자에게 한문의 기초적인 지식이 상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문과에서도 이러한 유형으로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한문과의 성어 문제에서 한자를 제시하고 한글을 병기하는 것은 국어 시간에 배운 한글로 배운 성어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자의 의미를 알고 읽을 수 있는 학생은 한자 지식으로 문항을 풀이하겠지만, 한자를 읽지 못하고 한글 독음으로 유추하는 경우는 한문 지식이라기보다는 국어 지식으로 정답을 풀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항과 학생, 교사의 반응으로 볼 때에도 한문과의 한자나 성어학습은 국어과와 대단히 밀접한 상보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55) 이에 대해서는 이명학(「국어능력 신장과 한자 학습과의 상관 관계 -<국어기본법>제3조 5항과 관련하여」, 『한문교육연구』 제37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11.)의 연구 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다.

#### IV. 결론

지금까지 국어과와 한문과의 상보성 배경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어과와 한문과 상보성의 배경은 어문정책의 변화와 교과로서의 역사를 통해 규명해 보았다. 국어와 한문은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함께 병존해 왔으며 갑오경장이후에 주 사용 언어가 한글로 변경되면서 서로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었지만 여전히 상보적인 위치에 있다.

국어과와 한문과의 상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문과의 한자, 한자어교육이 언어생활(읽기 및 조어력)에 도움이 되며, 고사성어 등의 배경 지식이 국어 비문학이나 문학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또 한문과의 한시 학습이 국문학 이해에 도움이 된다.

국어과의 문법용어나 어법은 한문 풀이를 용이하게 해 준다. 문장 독해 시 국어를 잘 알아야 정확한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문과에서 번호를 부여하면서 풀이하는 것도 현재의 言衆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국어 문법에 맞도록 풀이하는 절차이다.

끝으로 국어기본법 제정에 참여하였던 국어학자의 한자어 교육 강화 방안을 통해 두 교과 상보성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민현식은 현재를 국어교육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로 국민의 국어능력 저하가 매우 심각하고, 한자 文盲率은 동양 삼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들었다.

한자교육의 인식에 대한 설문에서 국어교사들의 반응은 한자교육 실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다. 한자 이해력이 어휘력 향상에 기여하는냐는 질문에 국어교사의 90%이상이 그렇다에 대답했고, 80% 이상이 학교 교육에서 한자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국어시간에 한자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경옥(1999)에서는 44.4%가 지도된다고 했는데, 민현식(2004)에서는 18.5%

만 국어 시간에 한자어를 배운다고 답했다. 국어과 교육에 한자교육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에 민현식(2004)에서는 43.8%가 필요하다고 했고, 14.8%는 아주 필요하다고 대답했다.<sup>56)</sup>

<參考 文獻>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2009.
- ,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5], 2012.
- ,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17], 2012.
- ,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초등학교 1~2학년』, 2012.
- ,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초등학교 3~4학년』, 2012.
- 박영민·권순희·선주원·오윤선·임수만·가은아·김지영·이영진·정미경·조성만·한수진, 『고등학교 문학 I』, 『고등학교 문학 II』, 비상교육, 2011.
- 윤여탁·최미숙·구분관·김혜정·김정우·김은성·김진식·박경희·김기훈,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 (주)미래엔, 2011.
- 한철우·박영민·박형우·김명순·선주원·최숙기·가은아·이영진·신승은·김기열·박종임·최성아, 『고등학교 국어 상』, 『고등학교 국어 하』, 비상교육, 2010.
- 남궁원, 「韓國 開化期 漢文科 教育의 展開 過程과 教科書 研究」,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56) 민현식, 「국어교육 정책 개선을 통한 한자어 교육 강화 방안」, 『어문연구』 제37권 제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 민현식, 「국어교육 정책 개선을 통한 한자어 교육 강화 방안」, 『어문연구』 제37권 제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 박상우, 「제2언어로서 한문 읽기 교육」,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백광호, 「한자 어휘 교육의 방법 모색과 실행 방안: 중·고교 교과와 연계한 한자 어휘 교육 방법 모색」, 『한자한문교육』 제2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2.
-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 교육과학사, 1997.
- 신용호, 「漢字의 東來 연구」, 『어문논집』 23호, 안암어문학회, 1982.
- 오윤경, 「국어능력 향상과 한문교육의 상관관계」,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돈석, 「근대이후 어문정책과 한문교육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동재, 「한자어 교육의 성과와 과제」, 『한문교육연구』 제37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11.
- 이명학, 「국어능력 신장과 한자 학습과의 상관 관계 -<국어기본법> 제3조 5항과 관련하여」, 『한문교육연구』 제37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11.
- 정재철, 「한국의 문자정책과 한문교육 -한문과 한글의 교섭 양상에 주목하여-」, 『한문교육연구』 제33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 진재교, 「고전문학에서의 한문교육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11호, 한국어교육학회, 2003.
- , 「국어기본법과 한문교육의 방향 -언어내셔널리즘을 넘어-」, 『한문교육연구』 제27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 한예원, 『한문교육론 -반성과 전망』, 문자향, 2006.
- 한중선, 「한국 개화기 일본어 문법용어 연구」, 『일본학연구』 제22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7.
- 한학성, 「이기룡의 『중등영문전』: 한국인 최초의 영문법 저술 고찰」, 『언어와 언어학』 제49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종합연구센터 언어연구소, 2010.
- , 「윤치호의 『영어문법첩경』 고찰」, 『언어와 언어학』 제53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종합연구센터 언어연구소, 2011.

허연구, 「한문과 영역별 평가문항 유형의 연구」, 공주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황위주, 「국·한문의 전통과 현실적 교육 상황」, 『한문교육연구』 제22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참고 사이트

국가교육과정(<http://www.ncic.re.kr>)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main.html>)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 Abstract

*Study on Complementary Background Between Chinese Character Subject  
and Korean Language Subject and Its Contents / Heo Youn Gu\**

When Chinese character was passed down in Korea, Chinese character has encroached on our national literacy life, also,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have been created and distributed by being centered with Chinese character or Chinese. However, while going through Gabogyongjang, each fate of Chinese character and Korean character has reversed, so that the pivot of literacy life has changed to Korean alphabet centered.

Later on, in the repeatedly changing language policy, Korean language class was created, which includes Korean alphabet and Chinese character, so that Chinese character and Chinese in Korean language subject has barely maintained viability and could keep itself in existence, though they have been weakened than former period. From the 3rd Curriculum, where Chinese character became the formal subject, it became an independent subject from Korean subject, from then on Chinese character subject and Korean language subject have been separated into two subjects which have different goals.

However, though Chinese character subject and Korean language subject have different identity, they still have complementary role when looking into their subject content.

When considering the content area of Chinese character and curriculum, Korean language subject has a close relation with Chinese character subject in the aspect of reading, grammar, and literature, which can form mutual background knowledge or schema in studying each subject. When seeing the

---

\* Neulpureun High School, Teacher / h7543@hanmail.net

textbooks which express the curriculum or evaluation questions, it appears more definitely. In the textbook of Korean language subject, explanation of Chinese character, explanation of phrases, Chinese character writing for difficult vocabulary, etc. can be said to be the complementarity with Chinese character subject. Also, Chinese reading ability, which is the core ability of Chinese character subject, cannot be performed without utilizing Korean grammar knowledge.

This way, Chinese character subject and Korean language subject definitely can be recognized that they have a strong complementarity between them. The research on complementarity between Chinese character subject and Korean language subject, as this, can be the foundation of coexistence and development of the two subjects, and will prepare an opportunity of establishment of identity from the position of Chinese character subject.

**【Key words】** Chinese character subject, Korean language subject,  
Complementarity, Complementary background,  
Complementary content

투고일 : 4월 27일, 심사일 : 6월 8일, 게재확정일 : 6월 12일